

### 제3지대, 빅텐트 논의 '속도'

# '기호3번' 확보, 빅텐트 성공 조건

두 축의 중텐트를 구축한 제3지대 신당들이 빅텐트 추진하면서 '기호 3번'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정당 기호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정되는데, 현재 거대양당을 제외하면 정의당이 6석으로 기호 3번이 유력한 상황이다. 반면 제3지대 현역 의원은 김종민·조용천·이원욱·양향자 등 4명에 불과하다. 이에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의 제3지대 합류 여부에 따라 '기호 3번'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각각 중텐트 구성을 완료했다. 빅텐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로 구성된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지난

###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등, 중텐트 구성

### 제3지대 현역 4명... 거대양당 이탈 주시

28일 단일 정당 창당 의사를 밝혔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개혁미래당'(가칭)으로 결정했으나, 현재 정식 당명을 공모하고 있다. 이들은 내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통합 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29일 당대당 통합을 발표했다. 통합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슬로건은 '한국의 희망'으로하기로 했다. 당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맡는다.

빅텐트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대표와 지도부 구성,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또한 설 연휴가 앞으로 다가오

고 있어 이른 시기에 빅텐트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3지대 신당들이 총선이 큰 상황이다. 제3지대 신당들이 현실적으로 빅텐트 구성에 골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제3지대 신당은 거대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을 주시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에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대 신당에 참여한 정치권 인사는 "공천 과정에서 불복하는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할 수 있지만 제3지대 신당에 입당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기호 3번이 현실적으로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들이 한 정당으로 모여도 정의당(6석)을 제치기 위해선 최소 현역 의원 3명이 더 필요하다.

일단 4명의 의원들이 모인다고 전제하더라도, 현역 의원의 추가 합류가 없다면 총선을 치르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제3지대 신당들이 현실적으로 빅텐트 구성에 골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제3지대 신당은 거대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을 주시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에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대 신당에 참여한 정치권 인사는 "공천 과정에서 불복하는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할 수 있지만 제3지대 신당에 입당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기호 3번이 현실적으로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 민주당 전주를 예비후보에 '원팀' 제안

### 최형재 예비후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알려진 전주에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 사이에 '원팀'이 제안됐다.

민주당 최형재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당 소속으로 동일 지역에 출마한 고종운·박진만·성치두·이덕훈 예비후보와 출마 의사를 밝힌 양경숙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많은 민주당 소속 출마자가 활동하다 보면 공천 과정에서 과열 경쟁과 네거티브, 경선불복, 탈당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며 "총선 승리, 정권 심판의 뜻을 함께 모아 통합과 화합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는 '원팀' 서약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제안 내용으로는 △전주의 미래를 위해 정책 선거운을 지향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공약 개발 및 협력 △공명正大한 경선과 깨끗한 결과 승 △경선 후 원팀 선대위 구성 △선대위의 정식으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헌신 등이다.

최형재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를 깨뜨리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15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라며 "민주당의 변화와 승리를 바라는 시민과 당원의 명을 받아 단 한 석도 내줄 수 없다는 각오로 원팀 서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 "군산에 야간 어린이병원 유치할 것"

### 민주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를 발표했다.

신 의원은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이 평일에는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도 전문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응급실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 방지와 짧은 대기시간도 장점으로 꼽힌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추진되며 종합 의료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나, 군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소아·청소년 심야 진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건강"이라며, "군산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로 새 시대 열 것"

### 민주 윤준병 의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물 공급원이자 정읍시의 젖줄인 동진강을 치수·이수기능의 보강을 넘어 정읍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수(親水)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공약이 발표되면서 정읍의 새로운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읍·고창 예비후보인 윤준병 의원은 지난 28일 제1호 공약으로 정읍의 새로운 동진강 시대를 열겠다고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동진강의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일일도로 윤 의원이 지난 4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접 구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진강은 그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농업용수 공급에 있어 필수적이며, 상류에 홍수조절을 위한 댐이 없어 치수·이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요구됐다. 그러나,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으로 그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간헐적인 대책으로 정읍 지역 등 주변지역의 홍수 및 가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동진강의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포함해 치수·이수 관리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역단위의 하천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하천 주변을 산책로 및 휴식·여가·문화공간으로 개발해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낙양지구와 정읍의 새로운 동진강 시대를 열겠다고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동진강의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일일도로 윤 의원이 지난 4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접 구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진강은 그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농업용수 공급에 있어 필수적이며, 상류에 홍수조절을 위한 댐이 없어 치수·이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요구됐다. 그러나,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으로 그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간헐적인 대책으로 정읍 지역 등 주변지역의 홍수 및 가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동진강의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포함해 치수·이수 관리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이를

/특별취재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는 29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인사회 및 특별강연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 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떡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

## '한반도 정세 전망·우리의 대응 방향' | 민주평통 전북, 신년 특별강연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위원장 송현만)는 29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인사회와 더불어 '한반도 정세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현만 전북 부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14개 시군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2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신년인사와 함께 전북지역 자문위원들의 염원을 담은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기원 떡케이크 컷팅, 특별강연회를 통해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역할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송현만 전북 부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1기 출범 후 각 지역에서 활발한 통일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내신 협의회장님과 자문위원님께 감사하다"며,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시기인만큼 정

부의 통일정책에 따라 적극적인 현장소통활동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행기관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전북이 도전적으로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며, "모든 분야의 리더십인 민주평통 여러분들이 먼저 특별한 도민이 되어야하고 통일로

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한반도 정세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한편, 전북지역회의는 올해 전북평화통일포럼을 비롯해 여성통일사업, 청년통일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다양한 통일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4월 국회의원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 "지역거점도시 익산 위해 목숨 바칠 것"

### 민주 김수홍 의원, 익산갑 재선 도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이 29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균형발전을 통해 익산의 지방소멸을 막아낼 검증된 일꾼"이라며 제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김 의원은 "4년 전 품었던 초심 그대로 익산시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익산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극화 시대의 골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북은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4년을 발판삼아 익산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수홍 의원은 "전북내 거점도시로 익산시를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의 네거티브 선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북내 거점도시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국토위에 있으면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정부와 의견도 나누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거점도시가 육성되지 않으면 서울로 어르신이나, 젊은 이나 이동하게 되어 있다. 전북 정치권이나 전북도 등 충분히 인식해야 한

다"며 "국토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경우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주기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GTX가 강원도 원주-춘천까지 가고, 충남은 아산-천안까지 내려온다. 수도권과의 교통, 산업, 주거환경이 다시 재편되면 더욱더 지방소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거점도시 육성에 정치권-전북도-시군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홍 의원은 "예산전망가이자 민원해결사인 김수홍이 뜨거운 신념으로 익산과 전북의 미래를 바꾸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바로 세우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홍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 익산갑 지역구에서 3선의 이준석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서 79.6%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특별취재반

